

다니엘서 강의 2강

<1-인트로>

안녕하세요. 이창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주권찾기 2강으로 다니엘서 3장과 4장의 내용을 살펴보려 합니다. 강의를 들으신 후 꼭 출석체크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강의 시작 하도록 하겠습니다.

<2-하나님을 찬양하던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만들다>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계시를 대변하는 다니엘의 지혜를 높이 샀습니다. 그리고 그를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의 리더로 삼죠. 이는 곧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과 그분의 심판적 메시지를 인정한다는 의미였습니다. 다니엘 2장을 통하여 바벨론의 백성들은 자신들의 신 마르둑보다 여호와 하나님의 더 위대하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옆면촬영)

바벨론은 원래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벨’ 또는 ‘마루둑’이란 신을 섬겼습니다. ‘태양의 아들’이란 뜻으로 ‘신들의 왕’으로 불리며 오랫동안 숭배했습니다. 이들도 창조 신화가 있었는데요. 많은 신들이 있었는데 ‘티아마트’라는 신이 다른 신들을 죽였습니다. 이에 마루둑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티아메트를 죽이고 그 시체로 천지를 창조했다고 내려져 옵니다. 우주를 창조하고 신들의 거처를 지어주며 병을 치료하는 등 여려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 50개나 되는 칭호를 갖고 있습니다.

(정면촬영)

이 마루둑을 섬기던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의 꿈 해석을 통해 하나님의 더 위대하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3장에 와서 갑자기 느부갓네살의 태도가 바뀝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던 그가 금 신상을 세우는 일에 몰두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2장과 3장 사이에 무슨일이 있어서 그의 마음이 바뀐 것일까요?

느부갓네살은 감정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말씀에 기초한 신앙이 아니라 감정에 근거한 신앙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든 왕 중의 왕이라고 찬양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금 신상을 만들고, 그 우상에게 절하라는 명령을 백성에게 한 것입니다.

3장 1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은 금으로 신상을 만듭니다.

다니엘 3:1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육십 규빗이고 너비는 여섯 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여기서 높이가 육십규빗, 너비가 여섯 규빗이라 되어 있습니다.

규빗은 히브리인들이 사용하는 길이 단위를 말하는데요, 보통 한 규빗은 팔꿈치에서부터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 길이를 말합니다. 보통 45cm정도 됩니다.

느부갓네살의 금신상은 높이각 육십 규빗이니 환산해 보면, 27m입니다. 이는 건물 10층에 해당하는 높이입니다. 그리고 너비는 여섯 규빗, 즉 2m70cm정도나 됩니다. 이 금신상은 그만큼 규모가 어마무시했습니다.

(옆면촬영)

큰 신상은 고대 유물들을 보면 흔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누비아의 아부심벨에 있는 신전에 위치한 람세스 2세의 거상들의 높이가 11.5m가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집트의 스팽크스는 밑에서 머리끝까지 높이가 20m, 전체 길이가 60m로 석회암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멘호텝 3세의 거대한 멤논의 거들도 23m의 높이입니다.

미국에는 자유의 여신상이 있습니다. 총 93m의 높이인데요, 그 가운데 받침대를 제외한 높이가 33m입니다. 그렇기에 두라평지에 놓여있는 금신상은 거의 오늘날 자유의 여신상과 크기가 비슷한 정도라 보시면 됩니다.

이 신상의 높이가 60규빗, 넓이가 6규빗인 것은 상징성이 있습니다. 6이라는 숫자와 6의 배수는 고대 바벨론 종교와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바벨론의 신인 마르둑이 사용하는 고유숫자가 60이었습니다. 바벨론의 종교 지도자들은 60진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정면촬영)

아울러서 이 신상을 무엇으로 만들었다고 했죠? 이 신상을 금으로 만들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을 통해 배운 것처럼 바벨론 도성에는 뭐가 많았죠? 네, 금이 매우 풍부하였습니다. 금으로 만든 신상이나 제단, 탁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온통 금으로 된 높이 60규빗 넓이 6규빗의 신상을 만들게 됩니다.

<3-왜 금신상 앞에 절하도록 했을까?>

느부갓네살 왕은 이렇게 금으로 만든 신상을 두라 평지에 세워 모든 백성들로 절하도록 했을까요?

아마도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서 2장에 기록된 꿈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마음이 불편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나라 금의 나라가 영원토록 존재하길 바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기를 왕 보다 못한 은의 나라 놋의 나라 철의 나라가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이 꿈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제국이 더 영원하길 바랬거든요. 그래서 그는 신상을 모두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머리만 금이 아니라 가슴과 팔 배와 넓적다리 온몸을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나라가 망하리라고 예언했던 꿈을 뒤바꿔 놓고자 하는 인간적인 몸부림이었습니다.

레바논에서 발견된 고대 비명에 이렇게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이전에 어느 왕도 성취하지 못한 것을 나는 했다. 아무도 혼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나의 왕다운 상을 영원하도록 세웠노라”

자기의 위대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의 왕다운 신상을 세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라 평지에 금신상을 세우고 각지 모든 관리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우상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권력을 이용하여 왕의 권력을 이용해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그가 세운 하나의 우상에게 경배토록 하였습니다. 아마도 느부갓네살 왕은 그가 꿈꾸고 있는 대제국을 통치함에 있어서 종교의 힘을 이용하려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 하나로 통일된 종교가 필요했습니다. 그는 그가 만든 우상에게 강제로 경배하도록 하면서 그의 정치적 힘을 이용해 하나의 우상 하나의 종교를 강요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는 다니엘은 없었습니다.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왜 그 자리에 다니엘은 없었을까요? 아마도 느부갓네살 왕은 그 자리에 다니엘을 초청하기에 매우 꺼림칙 했을겁니다. 다니엘이 ‘금의 나라는 은의 나라에 망할 것이다’ 꿈을 풀이해주었는데 이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고 금의 나라가 영원할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금신상을 세우고 경배하는 일에 초청하기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사단은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 금신상을 세우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경배토록 하면서 모든 사람들의 주목이 우상에게로 향하게 되길 바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순간 모든 사람들의 주목이 우상이 아닌 세 친구에게로 향합니다. 왕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죽을 것을 각오하고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한 유다 청년들이 그 자리에 당당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은 우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대표하는 세 친구들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4-갈대아 사람들의 고발>

하나님을 신뢰하는 다니엘의 세 친구는 왕의 명령을 듣지 않았습니다.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자 갈대아 사람들이 그들을 고발합니다.

성경에 '갈대아 사람들'이라고 기록된 이들은 사실상 바벨론의 고위직 접술가들입니다. 그들은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정치적인 시기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다니엘 덕에 지방 행정관직을 맡고 있으니 얼마나 눈에 가시 같았을까요?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것을 보고 이때다 싶어 그들을 고발하였습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이 크게 노합니다.

다니엘 3:14~15

14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15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 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옆면 촬영)

가만히 말씀을 살펴보면 '모든 악기'라고 표현하면 될 것을 일일이 악기 종류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놀랍게도 이 악기들은 세계 각국에서 불려 모은 악기입니다. 다시 말해 세계 각국에서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에 따라 모인 연합 오케스트라인 셈이죠. 바벨론 제국의 위상과 느부갓네살 왕의 위세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 할 수 있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우상 놀음에 빠진 독재자들은 항상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 음악을 이용 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히틀러입니다. 그는 음악이 일체감을 형성하는 데 탁월한 힘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국민을 휘어잡고 우민화하는 데 음악을 아주 적절하게 사용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각 지방마다 같은 모양의 신상을 만든 뒤 그가 동원한 오케스트라의 장엄한 음악 소리에 맞춰 신상에 절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명령을 듣지 않은 세 청년을 대하는 느부갓네살의 태도를 한 번 보시길 바랍니다.

(정면 촬영)

다니엘 3:15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왕의 명령을 어겼으니 벌을 내려도 시원치 않을 판에 자신의 말을 들어달라고 마치 사정하는 듯한 느낌입니다. 그만큼 왕은 이 똑똑한 유다 청년들을 아끼고 존중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끝내 그들이 말을 듣지 않자 느부갓네살 왕은 크게 분노합니다.

<5-절대적인 가치를 붙잡는 세 친구들>

이에 세 친구들의 반응을 보실까요?

다니엘 3:16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얼마나 단호하고 분명한 태도인가요? 세상의 그 어떤 권력도 함부로 덤비지 못하는 무적의 존재 앞에서 그들은 의지를 굽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이상 대답할 필요가 없다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들은 절대적인 가치를 붙잡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자주 변합니다. 우리가 절대적인 가치를 붙잡지 못하고 놓치게 만듭니다. 하지만 세 청년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절대 가치, 곧 하나님의 말씀을 불들었습니다. 십계명 중에서도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는 첫 번째 계명을 목숨처럼 지키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감성의 힘도 이성의 힘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말씀의 힘에 사로잡힐 때 우리는 참 진리를 붙들 수 있습니다. 절대 가치를 붙들고 권력에 굴복하지 않는 그들의 당당함을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 3:17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세 친구들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습니다. 어떤 위기에서도 건져 주실 하나님을 의지했죠. 그래서 절대 권력에 대항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두려움의 대상이 됩니다. 사람은 두려움이 대상이 아니라 긍휼의 대상임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세 친구들의 고백을 다시 보겠습니다.

다니엘 3:18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 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무조건 순복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신앙은 이렇다 생각됩니다. 우리의 계획을 말씀드리고 우리의 요구를 응답받는게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계획 앞에 우리가 설득당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지만, 만약 하나님이 그들을 불구덩이에서 죽게 하신다면 그것조차 기꺼이 받아들이겠다고 선언하죠.

루마니아 혁명 때, 요셉손이라는 목사에게 한 군인이 총을 들이대고 신앙을 포기하라고 협박했습니다. 신앙을 포기하지 않으면 방아쇠를 당기겠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요셉손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죽이는 게 네 무기라면 죽는 것은 내 무기다. 그러니 네가 나를 죽여야 내가 승리한다.

참 대단한 신앙입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이 영원히 변하지 않을 절대 진리인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거대한 세상과 맞설 수 있는 당당함, 그것이 참 신앙입니다.

<6-풀무불에 던져지다>

(옆면 촬영)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내실 것인데 그리하시지 않을지라도 왕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 말한 세 친구에게 느부갓네살왕은 매우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하고 집어 넣으라 명령했죠. 결국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풀무불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후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니엘 3:22-23

22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23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풀무불에 세 친구들을 넣으려던 사람들은 불에 타 죽고 맙니다. 그 광경을 지켜본 느부갓네살 왕은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나죠. 더 놀라운 것은 분명 결박한 채로 세 친구들을 불구덩이에 집어넣었는데, 지금 불 가운데로 결박되지 않은 네 사람이 걸어다니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이 당하는 고난 속에 함께 하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머리털 하나 상함 없이 그들을 풀무불에서 건져 내십니다.

(앞면 촬영)

다니엘 3:27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 탄 냄새도 없었더라

이보다 놀라운 반전이 어디있을까요? 참으로 극적인 승리입니다. 이는 장차 예수님이 사망이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 승리를 이루신 사건의 예표가 됩니다.

하나님은 3장까지 두 가지 사건을 통해 느부갓네살왕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한 사건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서 건짐을 받은 사건을 통해 이 땅에 영원한 나라는 없으며,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뒤 느부갓네살 왕은 다시 한 번 하나님을 높이며 그분의 나라가 영원함을 고백합니다.

<7-느부갓네살의 다른 꿈>

다니엘서 4장은 매우 특이한 부분입니다. 4장의 내용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나 이스라엘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방인, 그것도 대 제국의 왕의 시점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4장은 느부갓네살 왕의 자서전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니엘 4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다니엘서 4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또 한 번 꿈을 꾸게 됩니다.

다니엘서 4:4-5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리 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노라

다니엘서 4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평강할 때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실 느부갓네살 왕은 위대한 정복자 이면서 전제 군주였고, 거대한 바벨론 도성을 건축한 건축자였습니다. 43년간의 재위기간에 대부분을 전쟁터에서 보냈구요, 본국에 돌아와서는 거대한 바벨론성을 짓는데에 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는 마침내 정복전쟁과 대 제국 건설을 마친 다음에 드디어 본문의 말씀처럼 편히 있으며 평강 할 때를 맞이하게 됩니다. 온 제국이 이제 그 손아귀에 달려있었습니다. 말그대로 평화롭고 안전할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는 또 다른 한 꿈을 꾸죠. 다니엘 2장과 흡사한 모습입니다. 그 꿈으로 인하여 매우 고민하고 번민하게 됩니다.

<8-두 번째 꿈의 해석>

느부갓네살 왕의 두 번째 꿈도 결국 다니엘이 해석해 줍니다. 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니엘 4:10~14

10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리 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11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12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13 내가 침상에서 머리 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에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14 그가 소리 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헤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옆면 촬영)

나무 한 그루가 있었는데 하늘에 닿을 정도로 높고 컹습니다. 얼마나 무성한 나무인지 열매도 많이 열리고, 온갖 짐승이 나무 그들에서 쉼을 얻으며 가지마다 새들이 있었습니다.

이 나무는 바벨론 제국의 왕인 느부갓네살을 상징합니다. 나무 안에 사는 각종 짐승과 새는 저마다 이기적인 계산 속에서 그에게 빌붙어 사는 이들을 뜻합니다. 이 때 한 순찰자가 나타납니다.

다니엘 4:13

내가 침상에서 머리 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에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여기서 한 순찰자는 누구일까요? 그는 장차 왕 중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한 순찰자가 와서 한일을 주목해보세요.

다니엘 4:14

그가 소리 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헤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앞면 촬영)

순찰자는 큰 나무를 베어 버리라고 말합니다. 농사를 지어보면 알게 됩니다. 튼실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는 계절마다 가지치기 작업을 해야합니다. 제가 몇 년 전 시니어대학 야외학습을 준비하며 2월에 청송으로 답사를 갔었습니다. 청송하면 사과로 유명합니다. 길거리마다 사과를 팔고 있었습니다. 겨울이라 사과밭에 사람들이 없을 줄 알았는데 두세명씩 사과밭에서 일을하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보니 가지치기를 하고 있더라구요. 쓸데없는 곳으로 양분이 가는 것을 막기 위해 불필요한 가지를 잘라 내는 것입니다. 가지가 많으면 나무가 크게 보이긴 하지만 양분이 제대로 열매에 전달되지 않습니다. 순찰자 역시 이러한 관점으로 불필요하게 커진 나무를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비본질적인 요소를 덜어내고 본질만 남겨두는 작업을 하는 것이죠. 왕은 자신이 꾼 꿈의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 꿈의 내용을 듣고 너무 놀랍니다.

다니엘 4:19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이 꿈이 얼마나 무서운 꿈이었던지 다니엘은 “차라리 왕의 대적에게 이 꿈이 응하길 원한다 ‘라고 이야기 합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다니엘 4:20~23

20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달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21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22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달으시며 권세는 땅 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23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 두고 쇠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 풀 가운데에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봉을 얹으며 일곱 때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한 때 무성했던 나무가 그루터기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루터기라도 남긴다는 것은 여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최종 심판의 때까지 회개할 수 있는 기간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유다백성 뿐만 아니라 이방 왕 느부갓네살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역사 속에서 사용하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죄악은 징벌하시되 그를 아주 엎드리게 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꿈을 통해 하나님에게로 돌아올 기회를 주시고자 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니엘은 꿈을 풀이합니다.

단 4:26~27

26 또 그들이 그 나무뿌리의 그루터기를 남겨 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27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왕이 회개한 다음에야 비로소 그의 나라가 견고해 질 것이라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지만 심판의 메시지를 여과 없이 대연하는 것이죠. 다니엘의 행동은 목숨을 건 행동이었습니다. 각종 좋은 말로 아첨하는 거짓 솔사와 거짓 선지자들 사이에 다니엘은 중인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사람을 두려워하라”라는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중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9-교만한 인생은 낮아지게 됩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풀이해 준 뒤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단 4:28~31

28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29 열두 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새

30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31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네께서 떠났느니라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 제국이 가장 전성기에 있을 때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나라가 힘 있고 번성할 때 영적인 타락이 시작됩니다. 사람은 여유있고 물질적으로 넉넉할 때 죄를 저지르기 쉽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돈 쓸 겨를 없이 바쁘게 일하는 것이 오히려 복일 수도 있습니다.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죄 지을 생각을 할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잘 나갈 때 도리어 더욱 더 철저히 자신을 되돌아 봄아 합니다.

(옆면 촬영)

요즘 수술할 때 마취제를 사용해 환자의 고통을 크게 줄여줍니다. 그 마취제를 처음 개발하고 보급한 영국의 의사, 제임스 심프슨에게 어느 날 학생이 물었습니다.

“선생님의 인생 중에 가장 위대한 발견은 무엇인가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가 마취제를 발견한 것이라고 말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모두의 예상 을 뒤엎고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달은 것이 가장 큰 발견이다.

하나님은 결코 교만한 사람을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겸손한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신이 틀릴 수도 있음을 알고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을 그루터기가 되기까지 낮추십니다. 스스로 자신을 짐승이라고 착각 하는 동물화망상(Zoanthropy)에 걸리게 하신 것입니다. 한순간에 제국의 왕에서 처참한 병에 걸려 짐승의 흉내를 내며 숲속을 방황하는 자가 된 것이죠. 하나님은 수차례의 경고에도 돌이 키지 않았던 교만한 느부갓네살 왕을 가장 밑바닥으로 던지십니다. 인생의 밑바닥에서 하나님 의 하나님 되심을 빼저리게 배운 것이죠. 혹독한 고통의 시간을 통과하며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온 몸으로 깨달은 것입니다.

<10-느부갓네살의 고백>

(정면 촬영)

그리고 그는 이렇게 하나님을 높입니다. 느부갓네살의 고백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니엘 4:37

37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시므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느부갓네살은 교만으로 인한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다시 한 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잘못을 하기 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나의 나됨은 나로 인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해주심을 겸손히 인정하고 그 분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을 높여드리는 하루되시길 소망합니다.